



뉴타운 건설 현장을 담은 작품. 작가는 현실을 그저 풍경으로 기록하고 있다.

폐허가 된 풍경 앞에 별거벗은 현실을 두고 가까이 다가서지도, 외면하지도 못하는 작가는 그 압도적인 현실을 그저 ‘풍경’으로 바라보기로 마음먹는다.

이러한 이유로 그는 작업의 대상을 직시하기보다는 한걸음 물러서서, 혹은 비켜 서서 결눈질하듯 바라보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이러한 작업을 결국 과거 속의 현실일 뿐이며, 과거 이면서 동시에 실재인 어떤 것에 대한 개인적인 기억을 ‘기록 아닌 기록’이라고 칭하는 것이다.

결국, 그의 작업은 재개발을 둘러싼 첨예한 이슈를 전면에 내세우지는 않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질문들, 즉 무엇이 사라지는지, 무엇이 이러한 것들을 사라지게 하는지, 결국에 누가 이것을 보게 되는지에 대해 생각해볼 여지를 여전히 남겨준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한 듯 보이는 강홍구의 태도와 작업 앞에서도 여전히 힘겨운 현실을 떠올리게 되는 것인지 모른다.

글 김윤경·몽인아트센터 큐레이터

기사입력 2009.03.04 (수) 20:20, 최종수정 2009.03.04 (수) 20:19

스포츠월드 뉴스 및 콘텐츠를 무단 사용할 경우 저작권법과 관련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PORTS WORLD COPYRIGHT © sportsworldi.com All rights reserved.

인쇄 닫기